

대학생의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

김 은 영[†]

맑은맘심리상담센터 / 상담원

김 병 석

단국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632명을 대상으로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자살생각, 자기자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23.0와 AMOS 23.0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은 무망감,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자비는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집된 느낌의 직접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은 무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반면, 집된 느낌은 무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자비는 좌절된 소속감과 무망감, 집된 느낌과 자살생각, 무망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다른 경로에서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성별은 무망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있었으나, 다른 경로에서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의 의의와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살생각,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자기자비, 성별

* 본 연구는 김은영(2018)의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습득된 자살실행잠재력,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은영,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맑은맘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 웨미리빌딩 508호 / Tel : 031-272-1388, E-mail : eunlasan5678@hanmail.net

전국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8. 4. 30)에서 응답자의 75.4%가 불안, 43.2%가 우울을 보고하였고, 14.3%가 자살위험을 보고하였다. 이중 자살시도 경험자가 1.6%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이지만 10~30대 자살은 사망원인 중 1위이다. 특히 대학생의 나이에 해당되는 20~29세 사망의 5대 원인 중에서 자살이 44.8%를 차지하여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구성비를 보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9. 18).

대학생들은 이제까지의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학교체제 속에서 새로운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소속감이 좌절되고 심리적 외상을 겪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편여울강, 2015; 최우경, 김진숙, 2014).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인초기의 발달과제로써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한다. 연장된 대학생 기간, 등록금 및 각종 사교육비 등에 의해 시대적으로 보편적인 쉼터 부족 생활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이 가중된다. 이러한 대학생들은 자신을 짐처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길 수 있다(배옥현, 홍상욱, 2008; 유계숙, 손현경, 2015).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살 위기감이 높으며, 실제 자살현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의 자살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마련은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로운 예측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연구를 통해 자살을 줄이기 위한 개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박세란, 2016).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같은 자살행동은 자살의 가장 신뢰로운 예측요인들로 알려져 있는 만

큼(Berman, Jobes, & Silverman, 2006; Miranda et al., 2008) 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실제 자살사망자를 대상으로 직접 연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자살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의 하나인 자살시도를 연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Miranda et al., 2008). 그런데 국내 심리부검조사에서 자살자 중 36.5%만이 사전에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듯이(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자살시도는 자살자의 일부가 겪는 일인데 비해 자살자의 대다수가 자살을 하기 전에 자살생각을 경험하므로 자살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생각은 과거 자살시도경험보다 더 유용한 지표일 수 있다(McAuliffe,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살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최우경, 김진숙, 2014). 문화적 관점에서 자살을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보기보다 대인관계 관련 문제로 본다(Shiang, 2000).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호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경험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된다(최우경, 김진숙,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을 대인관계욕구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Van Orden et al., 201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Joiner(2005)에 의해 대인관계-심리이론으로 처음 제안되었고 여러 실증연구를 거쳐 정교화되었다. Joiner는 대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좌절된 욕구를 보상하는 핵심적 대인관계욕구로 ‘소속감’과 ‘효능감’을 상정하

였다. 그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대인관계에서 소속감과 효능감이 좌절될 때 정신건강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자살욕구를 경험하게 된다고 전제하였다. Joiner(2005)는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을 ‘의미있는 집단에서 관계가 단절된 느낌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심과 돌봄을 전혀 주고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지·정서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짐된 느낌(perceived burdensomeness)’에 대해서는 ‘자신을 무용한 존재로 느끼며 자신이 쓸모없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인지·정서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신장애, 실업 등과 같은 다른 자살위험요인들은 원격적 예측변수로 작용하고, 효능감의 좌절된 상태인 ‘짐된 느낌’과 소속감의 좌절된 상태인 ‘좌절된 소속감’이 공존할 때야 비로소 자살욕구의 근위적이고 충분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Joiner, 2005).

본래 무망감(hopelessness)은 Joiner의 이론(2005)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변인이었다. 그런데 여러 실험연구에서 소속감에 대한 무망처치가 자기파괴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다수의 중단 및 횡단연구에서 무망감이 자살의 신뢰로운 예측지표로 보고되었다(Beck, Brown, Berchick, Stewart, & Steer, 2006; Kuo, Gallo, & Eaton, 2004). 이후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에서 무망감은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욕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Van Orden et al., 2010).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에 따르면 좌절된 소속감이 강할수록 관계상의 배제감, 고립감이 악화되면서 죽고 싶다는 소망, 즉 소극적 자살생각

이 발생한다. 또한 짐된 느낌이 강할수록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신념이 강해지면서 소극적 자살생각이 발생한다. 좌절된 소속감과 짐된 느낌이 공존하면서 지속되면 관계에서의 배제감 및 고립감과 자신이 짐스러운 상태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속되리라는 무망감에 이른다. 무망감은 자살 이외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인지적 협소화를 가져와 자살욕구, 즉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적극적 자살생각을 가져온다(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 Van Orden et al., 2010).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을 지지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Trout(1980)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철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신과 환자의 자살실태를 조사한 연구(O'Reilly, Truant, & Donaldson, 1990)에서도 자살이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가장 빈번하게 확인된 변수가 사회적 철회, 짐된 느낌, 자신의 도움 요청에 대한 주변인의 거절에 따른 소속감의 좌절로 나타났다. 3,005명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Motto와 Bostrom(1990)의 연구에서 짐된 느낌은 60일 이후의 자살을 예측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짐된 느낌은 자살생각에 대해 일관되게 강력하고 신뢰로운 예측요인으로 지지되고 있으나(김보미, 유성은, 2012; Batterham et al., 2018; Buitron, Ryan, & Pettit, 2017; Pisetsky, Crow, & Peterson, 2017),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의 주요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김한솔, 2018; Carol et al., 2018)도 있는 반면, 자살생각에 대한 좌절된 소속감의 직접적인 영향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정희정, 2015; Cukrowicz, Jahn, Graham,

Poindexter, & Williams, 2013). 무망감은 좌절된 소속감이나 짐된 느낌과의 상호작용 혹은 매개(서지영, 2018; Cukrowicz et al., 2013)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짐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을 무망감이 완전매개하여 자살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인, 성소수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대부분 일관되게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김성연, 2013; 서지영, 2018; 이동희, 2013; 정희정, 2015; 조민호, 2009; 최우경, 김진숙, 2014). 매개효과의 검증은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Pederson, & Vogel, 2007),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이 완전매개한다면 이는 예측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이에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무망감이 매개변인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확인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방과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자살행동에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요인의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하기보다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자살을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유계숙, 손현경, 2015). 국내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를 살펴보면 자살생각 억제변인의 경우 자존감, 자아정체감, 애착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같은 자기 관련 변인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신건강의 주요 지표로 간주되어온 자존감의 부정적 측면이 여러 연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Neff, 2011). 자존감은 자기개념 상의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외부 평가에 민감하며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방어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박세란, 2016; Baumeister et al., 2003). 이에 자존감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건강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Neff(2003a, 2011)가 주창한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자존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Neff, & Vonk, 2009).

자기자비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인류 보편적 속성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왜 하필 나인가 하고 생각하기보다 현재를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Neff, 2003a). 자기자비는 자기친절 대 자기비난,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감, 마음챙김 대 과잉동일시 또는 회피와 같은 반대되는 두 개념이 쌍을 이루는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Neff, 2003b). 자존감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기 꺼려하고 자기개념을 위협받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흔들리는데 비해 자기자비는 자신을 비교·평가하거나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조현주, 현명호, 2011). 또한 자살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 우울 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민, 2012; Játiva, & Cerezo, 2014).

이와 같이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과 자기자

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 구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자비가 완충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집된 느낌 혹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 등 자기자비 관련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보고되거나(Buitron et al., 2017; Gautam, & Nagle, 2016) 우울 등 무망감 관련 요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나타난(양선미, 박경, 2015; Zeller, Yuval, Nitzan-Assayag, & Bernstein, 2015) 연구결과들이 이러한 가정을 지지한다.

또한 대인관계이론 구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자비가 완충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사 개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자면, 자기자비 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여주었고(조현주, 현명호, 2011), 군인의 스트레스 및 관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나타낸(박선영, 김경미, 2013) 결과들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충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면, 자살생각의 예방 및 개입에 자기자비가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에 따른 이론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다수의 자살 관련 통계에서 자살에 성차가 있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지만, 자살생각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2017; Wilcox et al., 2010). 자살생각에서 확인되는 성차에 대한 설명은 사회화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사회화를 통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며(Cyranowsky, Frank, Young, & Shear, 2000; Gilligan, 1990) 남자에게는 독립성이 더 강조되고 자신이 세운 목표의 성취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Blatt, & Maroudas, 1992). 또한 부정적 정서 대처와 관련하여 성차를 설명하는 경우 남자는 약물 사용 등 부정 감정을 외현화하는 경향이 더 큰데 비해, 여자는 자기비판적이거나 반추적인 반응 등 내현화하는 경향이 더 높다(이희연, 하은혜, 2015; 전민, 2012; Neff, 2003a).

이러한 설명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도 성별의 개입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개인적 성취의 좌절이나 실패 상황에서 집된 느낌을 더 경험하기 쉽고 이로 인해 무망감이나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성 및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이론 구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여자이성애자집단보다 남자이성애자집단에서 집된 느낌이 무망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고(김성연,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자살생각 예측변인들 중에서 집된 느낌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무망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Lamis, & Leater, 2013) 이와 같은 가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여자는 대인관계문제로 상호교류가 결핍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남자보다 좌절된 소속감을 더 경험하기 쉽고 이로 인해 무망감이나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관계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으며(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2017) 대인관계문제 및 관계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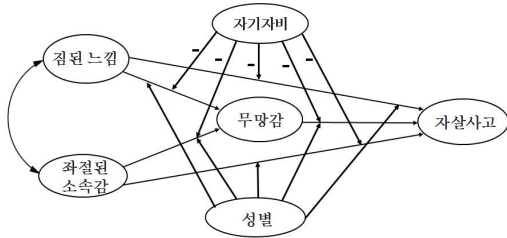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연구모형

주. ‘-’ 부정적 관계 방향 표기

스 역시 유력한 자살위험요인임을 밝히는 연구결과(김정호, 홍혜영, 2016; Spirito, Valeri, Boergers, & Donaldson, 2003)가 이를 지지한다. 또한 성장기 이후 우울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발견되므로(이희연, 하은혜, 2015), 우울의 인지적 요인에 해당되는 무망감이 여자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 예측요인들 중 무망감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고(Lamis, & Leater, 2013) 남성이성애자집단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여성이성애자집단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김성연, 2013)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된다면 자살생각 현상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성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성별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자살위험 평가, 예방 및 개입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이론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과 이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을 무망감이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자살생각의 구조에서 자기자비 및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정교한 자살생각의 예방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2017년 9월~11월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서울, 충남, 충북지역 13개 대학의 1~4학년 남녀대학생 639명이다. 수업 시간에 설문지와 소정의 답례품을 배포하였고, 설문목적과 중도포기의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참여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위해 자살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 그리고 자살개입전문기관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63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94명(46.5%), 여자 338명(53.5%), 연령분포는 17세~29세이고 평균연령은 만 21.3세였다. 학년분포는 1학년 151명(23.9%), 2학년 179명(28.3%), 3학년 193명(30.5%), 4학년 109명(17.2%)이었다.

측정도구

대인관계욕구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이하 INQ)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민호(2009)가 번안한 INQ 개정판 문항

중에서 Van Orden 등(2012)이 타당화한 15문항 척도를 사용했다. INQ의 5개 버전의 타당성을 연구한 Hill, Rey, Carla, Green과 Pettit(2015)에 의하면 15문항과 10문항이 가장 적합성이 좋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INQ 15문항을 타당화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보고되었다. 집된 느낌은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다’ 등 6문항, 좌절된 소속감은 ‘요즘 다른 사람들은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 등 9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의 범위는 집된 느낌 6점~42점, 좌절된 소속감 9점~6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의 정규성과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의견을 따라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제작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연수(2016)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집된 느낌 .94, 좌절된 소속감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 .88이었으며, 집된 느낌의 3개 하위영역은 .81, .82, .82, 좌절된 소속감은 .62, .68, .70이었다.

무망감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이하 BHS)

Beck, Weissman, Lester와 Trexler(1974)가 개발한 무망감척도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BHS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김성건 등, 2015)에서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였다. BHS는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등 총 20문항으로,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평정하여 총점범위는 0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무망감 역시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라 3개의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이 .78이었고(오충광, 2017), 본 연구에서는 .92였으며, 3개 하위영역은 .80, .81, .82였다.

자살생각척도(Scale of Suicide Ideation, 이하 SSI)

Beck, Kovacs과 Weissman(1979)이 임상면접용으로 개발한 SSI를 신민섭 등(1990)이 자기보고형 척도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SSI는 본래 정신과 환자(Beck, Brown, & Steer, 1997)를 기준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이후 대학생, 일반인 대상 상담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Brown, 2009). SSI는 ‘살고 싶은 생각은?’ 등 총 19문항으로 0점에서 2점까지 Likert 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의 범위는 0~38점이다. 자살생각척도 역시 3개의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희(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3개 하위영역은 .88, .75, .75였다.

자기자비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이하 K-SCS)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K-SCS를 사용하였다. K-SCS는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등 자기친절 5문항,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등 자기판단 5문항,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

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등 보편적 인간성 4문항,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등 고립감 4문항,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등 마음챙김 4문항,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들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등 과잉동일시 4문항으로 총 26문항이다. K-SCS는 5점 Likert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 범위는 0~10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영근, 2018)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하위척도인 자기 친절 및 자기판단은 .83, 보편적 인간성 및 고립은 .73, 마음챙김 및 과잉동일시는 .77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3.0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AMOS 23.0을 사용하였다. 척도값 비교의 용이성과 정규성을 고려하여 평균중심화된 값을 각 변수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절대적 적합성 지수인 χ^2 -통계량(CMIN)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를 이용하였다. χ^2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이론 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본크기에 영향받지 않는 RMSEA, CFI, TLI

를 함께 산출하여 비교하였다(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CFI, TLI는 .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모형의 인과적 구조경로 파악을 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출하였다. 이때, 간접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적 신뢰한계를 제공하는 Bootstrapping 추정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Byrne, 2009)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의 전제조건인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집단 요인분석, 집단별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다집단 경로분석, 집단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다집단 비교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이때, 연속변수인 자기자비의 경우 평균을 중심으로 고저집단을 구성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의 왜도(.06~1.72)와 첨도(.06~2.92)의 절대값이 각각 2와 3미만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 2, 첨도의 절대값 4를 초과하면 정규성에 위배된다(Hong, Malik, & Lee, 2003)는 기준에 근거해서 자료의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살생각의 경우 편포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나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에 의하면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벗어날 경우 표본크기가 모수의 수에 15배 이상이면 정규분포성으로부터

표 1. 변수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632)

변수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5
1. 집단 느낌	1																
1-1. 집단느낌 1	.96**	1															
1-2. 집단느낌 2	.96**	.81**	1														
1-3. 집단느낌 3	.94**	.78**	.75**	1													
2. 좌절된 소속감	.08*	.07	.09*	.07	1												
2-1. 좌절된 소속감 1	.04	.04	.05	.04	.92**	1											
2-2. 좌절된 소속감 2	.10*	.10*	.11**	.09*	.92**	.79**	1										
2-3. 좌절된 소속감 3	.07	.06	.08*	.06	.92**	.77**	.77**	1									
3. 무망감	.11**	.10*	.11**	.11**	.50**	.47**	.50**	.43**	1								
3-1. 무망감 1	.11**	.10*	.11**	.11**	.53**	.49**	.51**	.44**	.93**	1							
3-2. 무망감 2	.08	.07	.08	.08	.44**	.41**	.44**	.38**	.92**	.78**	1						
3-3. 무망감 3	.11**	.10*	.11**	.18**	.44**	.41**	.43**	.38**	.92**	.77**	.76**	1					
4. 자살생각	.41**	.39**	.41**	.39**	.34**	.31**	.35**	.28**	.36**	.39**	.26**	.34**	1				
4-1. 자살생각 1	.37**	.36**	.37**	.36**	.29**	.26**	.30**	.25**	.33**	.35**	.25**	.31**	.89**	1			
4-2. 자살생각 2	.35**	.34**	.36**	.33**	.30**	.27**	.30**	.25**	.28**	.31**	.17**	.27**	.90**	.70**	1		
4-3. 자살생각 3	.37**	.36**	.36**	.35**	.32**	.29**	.33**	.26**	.35**	.37**	.27**	.33**	.88**	.67**	.70**	1	
5. 자기자비	-.16**	-.14**	-.17**	-.15**	-.46**	-.43**	-.46**	-.40**	-.44**	-.46**	-.42**	-.46**	-.40**	-.44**	-.47**	-.38**	1
평균	2.18	2.19	2.18	2.20	2.71	2.81	2.74	2.58	0.22	0.26	0.18	0.23	0.23	0.22	0.24	0.25	2.14
표준편차	0.89	0.91	0.91	0.93	1.07	1.12	1.21	1.12	0.26	0.30	0.27	0.27	0.27	0.35	0.34	0.27	0.55
왜도	0.57	0.55	0.59	0.59	0.68	0.71	0.64	0.64	1.47	1.10	1.64	1.52	1.68	1.72	1.65	1.35	0.06
첨도	0.27	0.19	0.10	0.19	0.31	0.42	0.06	0.16	1.33	0.17	1.68	1.73	2.92	2.34	2.40	1.91	0.54

* $p < .05$, ** $p < .01$

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 본 연구자료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요변수들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및 각 하위영역과 자살생각 및 하위영역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좌절된 소속감의 하위영역 1은 집된 느낌 및 각 하위영역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좌절된 소속감 2는 집된 느낌 및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좌절된 소속감 3은 집된 느낌 2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무망감 및 하위영역은 집된 느낌 및 하위영역, 좌절된 소속감 및 하위영역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자비는 집된 느낌 및 하위영역, 좌절된 소속감 및 하위영역, 무망감 및 하위영역, 자살생각 및 하위영역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분석

본 연구모형은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자살생각 4개의 잠재변수와 잠재변수별 3개의 측정변수를 가진다.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48)=88.234$ 로 적합한 정도가 유의한 수준($df=48, p=.000$)이었고,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우수하여 연구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나타냈다, RMSEA=.036 (CI=.024~.048), TLI=.992, CFI=.994.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구조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집된 느낌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좌절된 소속감 → 무망감 →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만 Bootstrapping 추정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무망감을 매개한 간접효과($\beta=.13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에 대한 간접효과 신뢰구간(.063~.207)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총효과의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집된 느낌($\beta=.409, p<.001$), 좌절된 소속감($\beta=.347, p<.001$), 무망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변수		B	β	S.E.	t
직접효과					
집된 느낌	→ 무망감	.030	.063	.011	1.740
좌절된 소속감	→ 무망감	.153	.554	.011	14.162***
집된 느낌	→ 자살생각	.139	.394	.012	10.986***
좌절된 소속감	→ 자살생각	.082	.215	.014	4.775***
무망감	→ 자살생각	.247	.237	.049	5.012***

*** $p<.001$

감($\beta=.23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자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저집단을 구성하고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집단 경로분석의 전제조건인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측정동일성은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다(Byrne, 2009). 측정동일성의 검증은 형태동일성과 요인부하량동일성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표 3과 같이 집단 간에 어떠한 동일화계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함으로써 형태동일성을 살펴보았는데 모형의 적합도는 $\chi^2=125.297, df=96, p=.022, TLI .993, CFI .995, RMSEA .022$ 로 적절하여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모형과 집단 간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요인부하량에 동일화계약을 가한 제약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고 다른 적합지수들의 값을 구하였다. 제약모형의 적합도는 $\chi^2=137.200, df=104, p=.000, TLI .993, CFI .995, RMSEA .023$ 로 나타났고 기본모형과 제약모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Delta\chi^2$ 값은 11.273

($df=8$)으로 $\chi^2(8)=15.51$ 보다 작아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집단간 측정구조가 동일함을 보여주었고, 다른 적합지수들의 값 역시 만족할만한 적합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표 4와 같이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한 경로계수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이는 각 집단 내 경로계수의 유의성이며 자기자비 고저집단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집단간 경로계수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경로에 동일화계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알아보려는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에 동일화계약을 가한 부분제약모형을 비교하는 χ^2 차이검정은 반복차이검정에 따른 1종오류 증가의 우려가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고,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두 집단 간 모수추정량의 차에 대한 기각비를 구하는 z -검정을 실시하였다(유지연, 박창순, 2015; Byrne, 2009). 이를 위해 대응되는 두 모수추정량의 차에 대한 z -검정통계량(기각비)을 구하여 유의수준(α) .05에서 $|z| \geq z_{\alpha/2}=1.96$ 이면 영가설 즉,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집단에서 모수 차에 대한 기각비를 살펴보면 좌절된 소속감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표 3. 다집단 요인분석-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조절변수	제약	모델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자기자비		기본모형	125.927	96	.022	.993	.995	.022	11.273	8
	요인	제약모형	137.200	104	.000	.993	.995	.023		
성별	부하량	기본모형	157.614	96	.000	.987	.991	.032	11.229	8
		제약모형	168.843	104	.000	.988	.990	.031		

표 4. 다집단 경로분석 및 다집단 비교분석-대응별 모수비교 결과

조절 변수	경로/집단	B	β	S.E.	t	B	β	S.E.	t	기각비
		자기자비가 낮은 집단(n=318)				높은 자기자비집단(n=314)				Z
자기 자비	짐된 느낌 → 무망감	.021	.062	.018	1.163	.004	.019	.011	0.329	-0.816
	좌절된 소속감 → 무망감	.140	.478	.017	8.315***	.094	.396	.015	6.360***	-2.061*
	짐된 느낌 → 자살 생각	.187	.478	.021	8.808***	.062	.331	.012	5.346***	-5.145***
	좌절된 소속감 → 자살 생각	.053	.243	.016	3.408***	.038	.116	.020	1.880	-0.589
	무망감 → 자살 생각	.304	.270	.071	4.285***	.064	.069	.064	-1.003	-3.858***
성별	경로/집단	남자(n=294)				여자(n=338)				Z
	짐된 느낌 → 무망감	.018	.058	.016	1.080	.011	.033	.016	0.680	-0.315
	좌절된 소속감 → 무망감	.140	.541	.015	9.252***	.157	.556	.015	10.411***	0.780
	짐된 느낌 → 자살 생각	.102	.412	.015	6.880***	.134	.363	.019	7.011***	1.518
	좌절된 소속감 → 자살 생각	.058	.274	.021	3.811***	.068	.214	.011	3.287**	0.380
무망감 → 자살 생각	.102	.125	.058	1.761	.290	.258	.073	3.961***	2.015*	

** $p < .01$, *** $p < .001$ * $|Z| > 1.96$, *** $|Z| > 2.86$

Z(-2.061) 절대값이 Z(.05)값인 1.96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로에서 자기자비 고저집단 간에 경로계수 차이는 유의하였다. 또한 짐된 느낌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Z(-5.145) 절대값이 Z(.001)값인 2.86보다 크게 나타났고,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Z(-3.858) 절대값이 Z(.001)값인 2.86보다 크게 나타나 자기자비 고저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그 밖의 경로에서 집단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집단 비교분석 결과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기자비가 낮은 집단(B=.140, $p < .001$)과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B=.094, $p < .001$) 모두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자비가 낮은 집단(B=.187, $p < .001$),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B=.062, $p < .001$) 모두에서 짐

된 느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기자비가 낮은 집단(B=.304, $p < .001$)에서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B=.064)에서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경로에서도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자기자비 고저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표준화계수로 표기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동일성을 평가한 결과 기본모형 및 제약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Delta\chi^2$ 값은 11.229($df=8$)로 $\chi^2(.05)(8)=15.51$ 보다 작아 유의하지 않으므로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고, 집단간 측정구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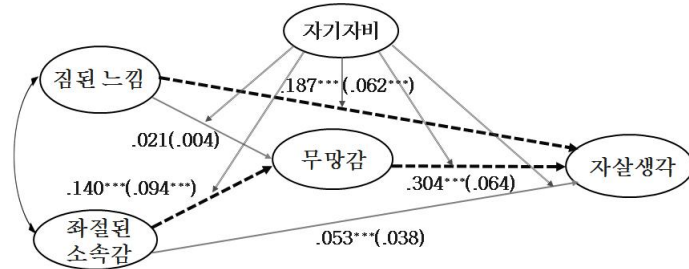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자비가 낮은(높은)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주. '---'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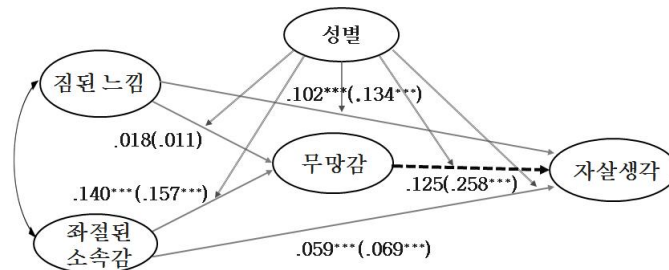


그림 3. 남자(여자)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주. '---'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로 표기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다집단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무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z 값 (2.015)이 $z^{(.05)}$ 값인 1.96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B=.290$, $p<.001$)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자($B=.102$)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경로에서의 집단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표준화계수로 표기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무망감의 매개역할을 조사하고,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을 부분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은 각각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세 변인 중에서 집된 느낌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였다. 이는 대학생, 외래환자

등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을 통제된 후 문제해결력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Carol et al., 2018)에서 대학생 집단에서는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문제해결력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고, 나머지 4개 집단에서는 문제해결력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집된 느낌만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밖에도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김보미, 유성은, 2012; Batterham et al., 2018; Buitron et al., 2017; Pisetsky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된 느낌의 발생에 기여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좌절된 소속감 역시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좌절된 소속감이 신뢰로운 자살생각 예측변인임을 확인하는 선행연구들(김한솔, 2018; Batterham et al., 2018; Pisetsky et al.,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무망감 역시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임을 증명하는 선행연구(서지영, 2018; 조민호, 2009; Kuo et al., 2004)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대학생들이 자신을 짐처럼 느끼고 자신의 부재가 주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호 교류없이 단절감과 배제감을 느끼는 경우,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불행감이나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자살생각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살생각의 구조는 대

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있어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량 및 중요성, 미래 인식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줄이는 방법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십년간 자살률의 30%를 감소시켜 성공적 개입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1. 23)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이윤주, 한춘교, 2016). 특히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을 근거로 좌절된 소속감, 집된 느낌을 자살위험스크리닝에 포함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이윤주, 한춘교, 201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망감의 매개효과는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경로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이는 다수의 연구결과(서지영, 2018; 이동희, 2013; 최우경, 김진숙, 2014; Cukrowicz et al., 2013)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상호교류가 없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낄수록 미래에도 이러한 상태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이 깊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은 귀인이론(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과 학습된 무기력(Miller, & Seligman, 1975)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소속감이 좌절되는 경험을 거듭할수록 그 원인을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등에 귀인하

면서 결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에 빠져 미래에도 결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무망감에 이를 수 있다. 반면, 집된 느낌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 뿐 아니라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서지영, 2018; Cukrowicz et al., 2013)와 일치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자신을 주변과 사회에 집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미래에도 이런 상태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고도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자살생각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은 핵심적인 대인관계욕구의 좌절된 상태지만, 자살생각을 유발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대인관계이론을 따르자면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된 느낌은 인지상담에서 말하는 자살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신념의 하나이자 심각한 인지 오류이다(Alford, & Beck, 1997). 반면에 좌절된 소속감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왜곡 뿐 아니라 ‘사실적’ 관계 단절 상태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다르거나 이들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추후 다른 자살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의 축적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후 이론의 수정으

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같은 보호요인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이론 구인들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완충효과가 차별적인 기능을 나타냈다. 자기자비는 집된 느낌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우선, 집된 느낌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자비 수준의 고저에 따라 집된 느낌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의 마음챙김이 집된 느낌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 연구결과(Buitron et al.,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된 느낌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탄력성과 같은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나타낸 결과(Gautam, & Nagle, 2016)와도 상통한다. 이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인류의 보편적 속성으로 인정하고 자기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자기자비적 접근은, 대학생의 집된 느낌이 자살생각을 유발할 가능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집된 느낌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징후임을 시사한다. 자기자비는 무망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 수준의 고저에 따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 등 무망감 관련 요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보

고한 연구(양선미, 박경, 2015; Zeller et al, 2015)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부정적 미래가 결코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신념에 의해 자살생각이 증폭될 때, 지금이 순간의 무관단적이고 자기친절한 수용을 강조하는 자기자비의 접근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무망감의 영향을 완충하여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무망감은 자살생각의 중요한 징후임을 시사한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자신이 관계에서 배제되어있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왜곡된 지각이 강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자기자비가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인 연구결과(Gautam & Nagle, 2016)와는 일치되지 않지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연구결과(Buitron et al., 2017)와는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Buitron 등(2017)이 대인관계이론 구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정교화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는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개별적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지지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대인관계이론 구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좌절된 소속감과 무망감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짐된 느낌과 무망감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선 좌절된 소속감이 강할

수록 무망감이 강해지지만 자기자비의 고저 수준에 따라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사 개념의 변인들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군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여준 연구(박선영, 김경미,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이 순간 경험하는 고통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돕는 자기자비(Neff, 2003a, 2011) 접근이 현재 대인관계에서 경험되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무망감을 발생시킬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짐된 느낌과 무망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충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자기자비와 무관하게 짐된 느낌이 강할수록 무망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유사개념을 다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기비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는데(조현주, 현명호, 2011) 본 연구와는 불일치된 결과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들 변인들의 관계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무망감 간의 관계에서도 개별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다른 표집을 통해서도 반복되는지 후속연구가 시행된다면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확인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종합하자면, 마음챙김, 인간경험의 보편성, 자기친절을 포괄하는 자기자비 접근이 자살생각의 근위적 촉발

요인으로서의 집된 느낌과 무망감의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대처수단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상담 개입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는 근위적 촉발요인의 하나인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좌절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조절변인의 개입을 가정해볼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상의 소외감이나 돌봄이 부재하다는 인식 때문에 자살생각이 유발될 때에는 개인의 내·외적 자원이 자기자비보다 더 강력한 조절효과를 지닐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개인 내적 자원에는 자존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등이 있고, 대표적 개인 외적 자원으로는 가족,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자원을 들 수 있다. 개인 내적 자원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은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안세영 등, 2015)에서 자살생각의 억제변인 중 자존감, 자아정체감 순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개인 외적 자원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규모가 클수록 자살위험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김혜성, 2015)가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다면 대인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소외감, 단절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나,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대인관계기술 향상 관련 개입,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이론 구인들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대인관계이론 구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일관되게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남녀에 따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는데, 남자의 경우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의 예측요인들 중에서 집된 느낌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던 남자대학생과 달리 여자대학생의 경우 무망감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Lamis, & Leater, 2013)를 지지한다. 이는 성장기 이후 우울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발현되며(이희연, 하은혜, 2015) 우울의 모든 증상이 미래의 부정적 기대와 연관되므로(이영호, 1993) 무망감이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생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까닭일 수 있다. 그런데 좌절된 소속감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성별에 상관없이 자살생각의 경로 중 가장 큰 경로계수값을 나타내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화과정과 대처양식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대인관계를 더 지향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고(이희연, 하은혜, 2015), 부적 정서를 내현

화하는 경향(Neff, 2003a)이 더 높다. 이에 여자가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이 좌절되고 단절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면 남자보다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미래에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남자는 여자보다 집단적 유대관계를 더 선호하는데(박선영, 2013; 박혜림, 2013) 소속감이 좌절되는 경험은 대인관계유능성을 크게 위협받는 일(김은경, 이정숙, 2008; 김재엽, 정운경, 이진석, 2009)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 적극적인 여자(정성진, 조현주, 2013)에 비해 남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박혜림, 2013; 이동희, 2013)을 보인다. 따라서 남자 역시 소속감이 좌절되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결코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무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단 무망감이 형성되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남녀가 대인관계 상에서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무망감을 동일하게 겪는다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자기 비판적이고 반추적인 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므로(이희연, 하은혜, 2015; 전민, 2012; Neff, 2003a)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살생각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살위험평가 및 개입에 있어 무망감보다도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여자는 자살위험평가 및 개입에서 집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 무망감 모두 비중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집된 느낌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 예측변인들 중 무망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남자는 집된 느낌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Lamis, & Leater, 2013)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화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Guisinger와 Blatt(1994)에 의하면 이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남녀에 상관없이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이 성숙의 지표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재가 주변과 사회에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자살생각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집된 느낌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집된 느낌은 무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무용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부재가 주변과 사회에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심각한 인지오류는 남녀에 상관없이 자살생각의 발생에는 기여하지만 무망감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여자이성애자집단과 남자이성애자집단 모두 집된 느낌이 무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성연(2013)의 연구와는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시사점을 제안하므로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이론 구간의 관계 및 역할을 명료화하고 집된 느낌의 중요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대인관계이론은 기존의 자살이론들을 잘 통합하며 특정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위험이 높이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Jennifer, Philip, Alison, & Jin, 2016)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이론 구인들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망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드물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이론 구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관한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들 요인들을 자살 위험평가에 포함시키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살위험요인들과 함께 자기자비와 같은 보호요인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문제에 보다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전략을 모색하는데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자기자비의 개입은 집된 느낌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좌절된 소속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살의 신뢰로운 예측지표로 알려진 무망감과 자살생각의 예방과 개입의 관점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무망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에 성별이 개입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성별을 고려한 자살생각현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고 대학생의 자살문제를 파악하고 개입전략을 고안할 때 성별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의의가 있다.

박수진, 김중남(2018)의 연구를 비롯한 다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자기보고식 설문 접근 및 임의표집에 따른 연구의 일반화 문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 통제문제, 그리고 횡단

연구에 따른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점 등 외에도 보완되어야할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된 느낌이 매우 강력한 자살생각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살생각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집된 느낌의 근위적 선행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Van Orden 등(2010)은 집된 느낌을 ‘주변에 대한 짐’이라는 인지 외에도 ‘자기혐오’인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자기혐오의 형성과정을 다룬 ‘자기로부터의 도피’이론(Baumeister, 1990)을 고려하는 것은 집된 느낌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aumeister에 따르면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의 원인을 내부 귀인하게 되면 부정적 자기평가가 악화되면서 자기혐오인지가 확립되고 이를 통해 정신기능이 협소화되는 인지적 몰락상태가 유발되어 자기파괴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제가 제거됨으로써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상호의존적 문화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Hewitt, Flett, & Weber, 1994) 역시 집된 느낌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Hewitt 등(1994)에 의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였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한다’는 믿음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강력한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고은영, 최바울,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3; Kl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고은영 등(2013)에 따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역시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을 지지하는 변인으로 이해되므로 도피이론에 근거하여 귀인양식, 자기혐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관련 변인들과 집된 느낌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집된 느낌의 근위적 선행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집된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관의 유이지만 매우 낮았고, 두 변인이 개별적으로 자살생각과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대상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변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박연수, 2016; 유계숙, 손현경, 2015)도 있지만 하나의 대인관계욕구로 묶어 연구함으로써 두 변인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최우경, 김진숙, 2014) 혹은 좌절된 소속감(박희주, 2014)만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 그나마도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표집 상의 제한점으로 인한 결과인지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반영한 결과인지 정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AMOS를 이용하여 연속변수인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중심으로 반분하여 2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간 경로별 계수의 차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속변수를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 허위(spurious)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MacCallum, Zhang, Preacher, & Rucker, 2002;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에서 재인용)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른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에서 자

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무망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좌절된 소속감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관심을 둘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에 대한 추가적 검증을 함으로써 이들 관계에서의 자기자비 개입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기자비와 성별을 포함하여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추후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재검증한 연구결과들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아우르는 자살예방의 관점 및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성별에 따른 세분화된 상담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영, 최바울,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63-81.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1. 23).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https://www.gov.kr/portal/ntnaNews/1324> 에서 검색.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생

- 각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임상*, 31(3), 731-748.
- 김성건, 이은호, 황순택, 홍상황, 이건설, 김지혜 (2015). 한국판 백절망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 정신의학*, 54(1), 84-90.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6), 123-134.
- 김정호,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속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391-413.
-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한솔 (2018). 청소년의 좌절된 소속감이 심리적 극통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 (2015). 폭력 피해 경험과 사회적지지 특성이 대학생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2), 157-175.
- 박선영 (2013).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및 남녀차이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김경미 (2013). 병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자기 자비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6), 3691-3707.
- 박수진, 김종남 (2018).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877-908.
- 박세란 (2016). 기질적 특성이 자살생각 및 자해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125-150.
- 박연수 (2016).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Needs in Predicting Current Suicide Ideation*.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2017). 대학 신입생의 자살위험요인 경험, 정신건강,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621-632.
- 박혜림 (2013). 중학생 집단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및 남녀 차이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주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좌절된 소속감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욱현, 홍상욱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27-34.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지영 (2018). 중장년층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절망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감-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1-19.
-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85-405.
- 양선미, 박경 (2015).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8), 105-130.
- 오충광 (2017). 대학생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수동적 태도, 우울, 무망감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24(11), 295-320.
- 유계숙, 손현경 (2015).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인관계육구와 삶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75-100
- 유지연, 박창순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26(1), 123-139.
- 이동희 (2013). 청소년의 애착, 대인관계 특성, 자살생각과의 관계: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한춘교 (2016).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6-R24, 1-132. http://www.nypi.re.kr/brdrr/boardrrView.mdo?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menu_nix=d35o34AE&cont_idx=542&edomweivgp=R 에서 검색.
- 이희연, 하은혜 (2015). 청소년의 성별과 우울 증상 간 관계에서 인지요인의 매개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4(1), 73-110.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2017).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7학년도 동계학술대회자료집, pp.1-19. 12월 18일. 전남,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우전비치홀. 미간행. <http://www.ccus.kr/> 에서 검색.
- 전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이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진, 조현주 (2013). 학생상담센터 내방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pp.265-265. 8월 24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미간행.
- 정희정 (2015). 대인관계심리모형을 통한 성인의 자살경로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호 (2009).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113-1131.
- 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비판과 우울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자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49-62.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2017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서울: 중앙심리부검센터. <http://www.psyauto.or.kr>에서 검색.
- 최우경, 김진숙 (2014). 대학생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 편여울강 (2015).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존감안정성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보도자료 (2018. 9. 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aSeq=37071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0 에서 검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8, 4. 30).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 시급하다. <http://www.kcue.or.kr/bbs/view.php?gb=news&idx=615> 에서 검색.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영근 (201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공포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195-212.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lford, B. A., & Beck, A. T. (1997). *The integrative power of cognitive therapy*.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Batterham, P. J., Walker, J., Leach, L. S., Ma, J., Calcar, A. L., & Christensen, H. (2018). A longitudinal test of the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for passive and active suicidal ideation in a large community-based coh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7, 97-102.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 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ck, A. T., Brown, G., Berchick, R. J., Stewart, B. L., & Steer, R. A. (2006).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in Psychiatry*, 4(2), 291-296.
- Beck, A. T., Brown, G. K., & Steer, R. A. (1997).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11), 1039-1046.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 Berman, A. L., Jobs, D., & Silverman, M. M. (2006).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 Maroudas, C. (1992). Convergences among psychoanalytic and cognitive behavioral theories of depression. *Psychoanalytic Psychology*, 9(2), 157-190.
- Brown, G. K. (2009). *A review of suicide assessment measures for intervention research with adults and older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 Buitron, V. H., Ryan M., & Pettit, J. W. (2017). Mindfulness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dults With elevated depressive symptom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7(5), 580-588.
- Byrne, B. M.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NY: Routledge.
- Carol, C., Stanley, I. H., Greenberg, J. H., Walker, K. L., Hirsch, J. K., Rudd, M. D., & Joiner, T. E., Jr. (2018). Perceived problem-solving deficits and suicidal ideation: Evidence for the explanatory roles of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in five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15(1), 137-160.
- Cukrowicz, K. C., Jahn, D. R., Graham, R. D., Poindexter, E. K. , & Williams, R. B. (2013). Suicide risk in older adults: Evaluating models of risk and predicting excess zeros in a primary car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4), 1021-1030.
- Cyranowsky, J. M., Frank, E., Young, E., & Shear, M.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s in lifetime prevalence rates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Gautam, A., & Nagle, Y. K. (2016).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11(2), 459-467.
- Gilligan, C. (1990). *Remapping the moral domain: New images of the self in relationship*.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2), 104-11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University Press.
- Hewitt, P. L., Flett, G. L., & Weber, C.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5), 439-460.
- Hill, R. M., Rey, Y. M., Carla, E. S., Green, K. L., & Pettit, J. W. (2015). Evaluating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the Reliability, Factor Structure, and Predictive Validity across Five Version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5(3), 302-314.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Játiva, R., & Cerezo, M. A. (2014). The mediating role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 maladjust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38(7), 1180-1190.
- Jennifer, M., Philip, J. B., Alison, L. C., & Jin, H.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Review*, 46, 34-45.
- Joiner, T. E., Jr.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2), 141-156.
- Kuo, W. H., Gallo, J. J., & Eaton, W. W. (2004). Hopelessness, depression, substance disorder, and suicidality: A 13-year community-based study.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39(6), 497-501.
- Lamis, D. A., & Leater, D. (2013). Gender difference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27(1), 62-77.
- MacCallum, R. C., Zhang, S., Preacher, K. J., & Rucker, D. D. (2002) On the practice of dichotomiza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Psychological Methods*, 7(1), 19-40.
- McAuliffe, C. M. (2002). Suicidal ideation as an articulation of intent: A focus for suicide prevention?.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6(4), 325-338.
- Miller, W. R., & Seligman, M. E. (1975).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3), 228-238.
- Miranda, R., Scott, M., Hicks, R., Wilcox, H. C., Harris Munfakh, J. L., & Shaffer, D. (2008). Suicide attempt characteristics, diagnoses, and future attempts: Comparing multiple attempters to single attempters and idea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7(1), 32-40.
- Motto, J. A. & Bostrom, A. (1990). Empirical indicators of near-term suicide risk.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11(1), 52-59.
- Neff, K. D. (2003a).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2.
- Neff, K. D. (2003b).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2011). Self-compassion, self-esteem, and well-being. *Social and Personality Compass*, 5(1), 1-12.
- Neff, K. D., & Vonk, R. (2009). Self-compassion versus global self-esteem: Two different ways of relating to oneself. *Journal of Personality*, 77(1), 23-50.
- O'Reilly, R. L., Truant, G. S., & Donaldson, L. (1990). Psychiatrists' experience of suicide in their patients.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15(3), 173-176.
- Pederson, E. L., & Vogel, D.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 Pisetsky, E. M., Crow, S. J., & Peterson, C. B.

- (2017). An empirical test of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a heterogeneous eating disorder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0(2), 162-165.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iang, J. (2000). Considering cultural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study of suicide. In R. W. Maris, S. S. Canetto, J. L. McIntosh, & M. M. Silverman (Eds.), *Review of suicidology* (pp. 226-24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pirito, A., Valeri, S., Boegers, J., & Donaldson, D. (2003). Predictors of continue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following a suicide attemp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2), 284-289.
- Trout, D. L. (1980).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0(1), 10-23.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T. E., Jr.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T. E., Jr.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Wilcox, H. C., Arria, A. M., Caldeira, K. M., Vincent, K. B., Pinchevsky, G. M., & O'Grady, K. E. (201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ersistent suicide ideation, plans, and attempts during colleg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7(1-3), 287-294.
- Zeller, M., Yuval, K., Nitzan-Assayag, Y., & Bernstein, A. (2015). Self-Compassion in Recovery Following Potentially Traumatic Stress: Longitudinal Study of At-Risk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4), 645-653.

원 고 접 수 일 : 2019. 06.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8. 23
게 재 결 정 일 : 2019. 09. 16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les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Eun-young Kim

Clear Mind Psychology Counseling Center / Counselor

Byeong-seok Kim

Dankook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632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hopelessness, suicidal ideation, and self-compa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lessness and suicidal thoughts, while self-compa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other variables. The fit of the study model was good.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hopelessnes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warted belongingness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hopelessness, while perceived burdensomeness had no indirect effec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gender were partially confirme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hopelessness, self-compassion, gender